

2012학년도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

역 사

2차 시험	1교시	2문항 50점	시험 시간 120분
-------	-----	---------	------------

수험생 유의 사항

- 문제지(초안 작성 용지 포함)와 답안지의 전체 면 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. **답안지는 문항당 2쪽(교시당 4쪽), 초안 작성 용지는 교시당 4쪽입니다. 답안은 문항당 2쪽 이내로만 작성하시오.**
-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**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**하여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, 수험 번호,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해당란에 '●'로 표기하시오. '●'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오.

	1번 문항, 1번째 답안지 표기		1번 문항, 2번째 답안지 표기	
예시	문항 1 전용 답안지	쪽 번호 표기란	문항 1 전용 답안지	쪽 번호 표기란
		● ②		① ●

- 답안은 **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정색 펜**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(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음.).
- 수학, 과학 과목 등 필요한 경우 답안지 가운데 선을 그어 좌우의 2단으로 나누어 답안을 작성해도 됩니다.
-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일절 옮겨 적지 마시오. 단, 하위 문항이 있을 경우, 하위 문항의 번호(1-1, 1-2)를 답안지 앞부분에 쓰고 답안을 작성하시오.
- 각 문항 답안 작성 후 **마지막 문장 뒤에는 반드시 '끝' 자를 쓰시오**(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각 하위 문항에도 '끝' 자를 쓰시오.).
- 답안 초안 작성은 문제지의 맨 뒷부분에 있는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.
- 답안 수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두 줄(=)을 그으시오.
-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.**
 - 문항당 답안지 2쪽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
 - 답안란 이외에(뒷면 등) 작성한 부분
 -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
 -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
 - 개인 정보를 노출한 답안지 전체
 - 개인 정보를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
-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.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.
-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도 성명, 수험 번호, 문항별 답안지 쪽 번호를 기재·표기한 후, 4쪽 모두 제출하시오.**

1. 김 교사는 중학교 역사 수업을 위해 (가)의 수업 계획을 세웠다. (나)를 참고하여 ㉠을 구성하고(20행 이내), 교사가 수업 진행 과정에 ㉡을 설정한 의도를 쓰시오. 그리고 ㉢의 사료탐구학습지에 들어갈 사료의 내용 선정 기준 2가지와 ㉣의 기준 3가지를 제시하시오. 【25점】

(가) 김 교사의 수업 계획

주제	“갑신정변은 왜 일어났을까?”
목표	○ 급진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킨 배경과 목적, 정변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한다. ○ 갑신정변에 관한 다양한 사료를 읽고 분석할 수 있다. ○ 갑신정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.
자료	교과서, 사료탐구학습지
진행	㉠ 갑신정변에 대한 교사의 이야기식 설명 (15분) ㉡ 사료탐구학습지 활동 (10분) ㉢ 역사 글쓰기 (15분): “급진 개화파는 반드시 정변을 일으켰어야만 했을까?”
평가	㉣ 수행평가로 학생이 쓴 글의 내용을 평가

(나) <김 교사와의 대답>

문: 수업의 전반부를 이야기식 설명으로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?

답: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, 과거 인물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이야기 수업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.

문: 학생들이 사료를 탐구하고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
답: 사료를 읽고 이해하면서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역사 글쓰기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.

2. (가) 토지제도의 실시 배경과 그 의의를 밑줄 친 ㉠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. (가)와 (나) 사이에 실시되었던 핵심적인 토지 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쓰고, (나)와 (다)의 토지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. 【25점】

(가) 삼한을 통합할 때의 朝臣과 軍士들에게 官階는 논하지 않고 ㉠성품과 행동의 善惡, 공로의 大小를 살펴서 차등 있게 토지를 지급하였다.

- 『高麗史』 卷78 志32 食貨1 田制 -

(나) “근래에 전쟁이 일어나서 창고가 텅 비어 百官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士人들을 격려할 수 없습니다. 품계에 따라 경기 8현의 토지를 지급하십시오.”라고 하였다. 그때 諸王과 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기름진 토지를 널리 차지하여 여러모로 방해하니 왕이 자못 현혹되었으나 右承宣 許珙 등이 여러 번 말하여 왕이 마지못해 이에 따랐다.

- 상동 -

(다) 무릇 京城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지키는 자는 現職, 散職을 논하지 않고 각각 科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. 제1과는 在內 大君에서 門下侍中까지 150결, 제2과는 在內府院君에서 檢校侍中까지 130결, … (중략) … 제18과는 權務, 散職으로 10결이다. 外方은 왕실의 울타리이니 마땅히 軍田을 두어 군사를 기르고 東西 兩界는 예전대로 軍需에 충당한다. 6도의 閑良官吏에게는 資品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그 本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軍田 10결 혹은 5결을 지급한다.

- 상동 -

수고하셨습니다